

## 무소속 광주시장 단일후보에 강운태

☎ 선택 6·4 지방선거 D-8  
姜·李단일화 여론조사 승리  
이용섭, 선대위장 맡기로  
姜 “광주 자존심 되찾겠다”

광주시장 선거에서 최대 변수로 꼽혔던 무소속 강운태·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강운태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 <관련기사 3면>  
강 후보와 이 후보는 26일 오후 2시 광주 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두 후보 측은 미디어리서치와 서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유권자 각 1100명씩을 대상으로 ‘본선 경쟁력·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양 후보 측은 애초 합의대로 여론조사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두 후보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단일후보는 강운태 후보로 하고, 두 사람은 합의 정신에 입각해 단일후보가 본선에서 밀실 공천 낙하산 공천을 심판하고 광주시민 자존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광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끝까지 아름다운 동행을 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용섭 후보는 강운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다. 선거본부는 해체하지 않고 강 후보와 통합해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저를 약속 드린 대로 강운태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부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다 벗



2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무소속 강운태·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에서 강운태 후보(왼쪽)가 단일후보로 확정된 뒤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어던지고 강운태 후보를 도와 광주시민을 무시한 안철수·김한길의 낙하산 후보를 심판해달라”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강 후보는 “한국정치사에 있어 이처럼 아름다운 결단으로 저에게 양보해준 이 후보에게 감사하고 존경하고 미안하다”며 “통합 선대위를 구성해 밀실야합 공천 후보를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광주를 모독하고 광주는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든 안철수와 김한길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6·4 지방선거에서 당선했던 광주의 자존심과 명예를 확실하게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두 후보는 단일후보 결과를 발표한 뒤 두 차례 포옹을 했고, 지지자 수백명이 박수와 연호를 보내는 등 회견장 분위기가 뜨거웠다.

무소속 강운태 후보가 이날 단일 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광주시장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 대 강 후보의 양강구도로 재편되게 됐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윤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 ‘후폭풍’이 상당한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 결과 ‘강·이 단일후보 파괴력’이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광주시장 선거가 전국적인 관심 선거구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 재난대비 ‘F학점’

법정 관리기금 확보율 36% ... 전국 최하위 수준

광주 5개 자치구 모두  
법적 확보의무 안지켜

재난관리기금  
재난예방사업이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기금.

광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세월호 참사’처럼 재난발생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모두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등 광주의 재난기금 확보 의식은 최악이었다.

26일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자치단체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4조3823억3500만원으로, 법정 기준(4조1383억5300만원)보다 6% 정도 초과했다. 전국 17개 시·도와 227개 시·군·구 전체의 누적 확보율은 106%를 기록해 법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시·도별 확보율은 격차가 매우 컸다.

특히 17개 시·도 중 인천시의 확보율은 34%로 가장 낮았으며, 광주는 법적 누적 확보율 80%에 불과한 290억원만 확보해 누적 확보율이 36%에 불과했다. 울산의 누적 확보율도 49%로 법정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대구는 53%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시·군·구에서는 부천시의 확보율이 46%로 가장 저조했으며, 수원시(53%), 광주 동구(55%), 광주 광산구(55%), 광주 서구(60%), 대구 북구(62%), 광주 남구(67%), 영덕군(75%), 천안시(76%), 서울 성북구(80%), 고양시(81%), 전주시(83%), 서울 영등포구(87%), 용인시(87%), 광주 북구(92%) 등이 법적 재난관리기금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광역자치단체는 총 6곳, 시·군·구는 24곳으로 최종 집계됐다.

방재청은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시·군·구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누적확보율이 90% 미만인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이후 확보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방재청은 앞으로 재



난관리기금 확보율이 저조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소화전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예산지원과 자연재난 관련 평가·포상 등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재난 대응 능력을 확보하려면 지자체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등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이나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기금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적립을 미루거나 통합관리기금으로 합쳐 일반사업비로 전용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고양터미널 화재 ... 6명 사망·42명 부상 참사

중상 많아 사망자 늘어날 듯

경기도 고양시내 대형 쇼핑몰을 갖춘 종합터미널에서 26일 불이나 6명이 숨지고 42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병원으로 후송된 부상자 가운데 중태자가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소방방재청은 인명피해가 커져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 사고 수습 지원에

나섰다.

이번 화재는 실내 계단을 통해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 피해를 낸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등 인제(人災)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화재는 이날 오전 9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외버스터미널 지하 1층 푸드코트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해 이강수(50)씨 등 6명이 유독가스에 질식사 숨지고 42명이 부상했다. 사망자에는 버스회사·쇼핑몰·환경미화 직원과 물품배송기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4명), 동국대 일산병원·명지병원(각 1명)에 각각 안치됐다. 부상자들은 이들 병원과 일산백병원 등에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

다. 화상보다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인명피해가 컸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불은 종합터미널 지하 1층 푸드코트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현장에는 8월 개장 예정인 아웃렛 푸드코너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다.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면서 가스에서 불길이 일었고 주변 가연성 자재에 옮겨 붙으면서 유독가스를 내뿜었다.

현장에는 근로자 80명이 있었으나 신속히 대피했다. /연환뉴스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6·4 지방선거 표발 점검  
광주 광산구청장 ▶4명  
담양군수·장성군수 ▶12명

탐승 476명 구조 172명  
실종 16명 사망 288명  
※ 세월호 참사 41일째  
26일 오후 8시 현재 ▶관련기사 7면

더 큰 전념을 약속합니다!

전라남도교육감후보자 장만채 후원회 광고

교육감은  
장만채

대한민국에서 당당한  
전남의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장만채

- 전남 영암 출생 (56세)
- 서울대 화학과 졸업
- KAIST 이학박사
- 전 미국 플로리다주립대·브리검영대 객원교수
- 일본분자과학연구소 초청 과학자
- 미국 최고기 수입협정 파기 촉구 교수선언 참여
-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상의위원
- 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회원
- 전 순천YMCA 이사
- 청조근정훈장 수상

현) 전라남도 교육감  
전) 국립순천대 총장

심포 없는 교육개혁, 전남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후원계좌 : 농협 301-6644-0604-41 | 우체국 500033-01-008367  
(예금주 : 전남교육감후보자 장만채후원회)

장만채 후원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리 274 농협빌딩 202호 T. 061-283-0604 http://biogover.com/manchaichang